



신행단체들이 템플스테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에서 인경을 배우고 있는 직장인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직접 짜고 참여하니 신심나네

맞춤식 템플스테이 이렇게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신행단체의 신행문화도 바꾸고 있다. 신행단체들이 매년 실시해오던 수련회를 체험 위주의 템플스테이로 대체하고 있는 것. 템플스테이는 불자들이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함으로써 자기수행과 신심을 진작하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자칫 '남도 하나까 나도 하나' 식의 관성에 빠질 우려도 없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많다. 그렇다면 신행단체의 템플스테이는 일반 템플스테이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

스스로 기획·준비하라

기획에서부터 회향까지 템플스테이의 모든 프로그램과 필요한 준비물, 법사·강사 등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획단계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 테마를 설정하고, 모든 회원이 참여함으로써 친선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템플스테이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사회 활용하라

올해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사찰은 50여 곳. 이 사찰들은 템플스테이를 할 만한 공간과 여건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용할 능력이 있지만, 신행단체의 템플스테이로는 적합하지 않다.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숙박 공간이 있는 사찰이라면 어느 곳든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행단

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도 좋다. 지역불교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정 맞는 프로그램 구성

템플스테이의 성공여부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행단체의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단체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찰의 사정과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오래 남는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다. 직장단체는 직업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직장생활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와 불교' '지자체와 종교' 등을 주제로 한 강좌나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불자회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또 병원봉사모임의 경우

준비과정 통한 회원간 단합 도모

직업 특성·참가자 수준 고려해야

'불교와 의학'과 같은 강좌를 마련해 직업적 시각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양방과 한방의 이해'와 같은 강좌를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도 알찬 템플스테이의 한 방법이다.

가족과 함께

활발한 신행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신행활동에 대한 가족의 이해가 필요하다. 템플스테이에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신행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신행단체에 있어서도 회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모임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의 핵심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 짝을 이뤄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징검다리를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 건너기',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3배 올리기' 등의 프로그램은 가족 프로그램으로써 손색이 없다.

피드백...느낌 공유

템플스테이가 그저 한 번의 좋은 체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의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또는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소감문 올리기'는 회원간 동질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 또 소감문에는 댓글을 달아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모임 활성화로 연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장동료가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에서는 포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님

정후시

서울 성북구청 법륜회장



서울 성북구청 전임 후 2년째 되던 1995년 성북구청 법륜회장을 맡아 10년이 넘도록 회원들을 다독이는 정후시(54·사진) 회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1.2기 사무국에서 기획업무 담당했던 그는 이전 근무지였던 중랑구청에서도 1988년 보현회를 결성할 만큼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불자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단결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서 불자들을 조직화하기 힘들겠"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재칠시' 운동으로 매월 봉사

회장이 무재칠시(無財七施, 재물이 없어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곱가지 보시) 운동을 제안해 성북구청 법륜회는 매월 관내 복지관과 소책자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직장상사와 가정에서는 사경을 생활화해 구청내에서도 회원들의 평판이 매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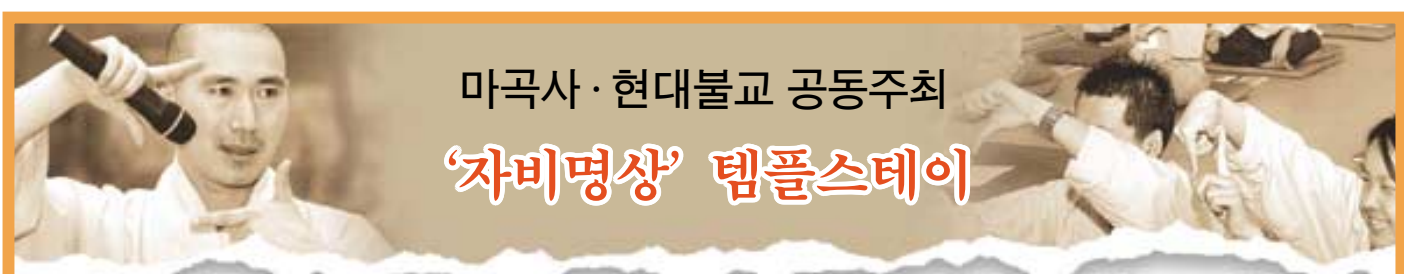
"법륜회원들은 직급,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하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있어요. 회원들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고 동료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불법을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지요.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독실한 불교집인에서 자랐으면서도 불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에 문외한이던 정 회장을 불교로 이끈 이는 부인이었다. 보은 법주사에서 월탄 스님으로부터 해법(法法)이라는 법명을 받은 정 회장은 부인을 따라 법회와 사찰을 다니기 시작했고 불서를 읽으며 믿음을 키웠다. 휴일이거나 휴가 때에는 일행삼사(一行三寺, 한 번 절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세 곳의 절에 간다)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사찰을 찾아다녔다.

요즘에는 사찰을 찾을 때마다 자신을 버리는 기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를 믿으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나를 버리는 방법을 배운거예요. 이 한 가지가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놓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부처님과 큰스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박병영 기자**



마곡사·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순간 최고로 사랑하세요

4차,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장마 뒤 불볕더위가 한창이던 7월 22일~24일 12가족 47명이 마곡사를 찾았다. 가족을 위한 4차 마곡사여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한데 모여 먹고, 자고, 예불을 올리며 '참가자'라는 또 다른 가족을 이루어 사랑을 지냈다.

느낌의 미학 배우기

열 두 가족이 연화당에 모여 앉은 템플스테이 첫째 날. 각 가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족 이름과 개인 별칭을 지은 참가자들은 서로 어색함을 깨기 위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서 오셨어요? 저희는 분당에서 왔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108빠나 발우공양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큰일이고..."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가족들을 끌고 왔어요."(극우: 기사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마곡사 템플스테이에서 스스로 만들어 사용한 별칭임)

"우리가족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빠르고 자극적인 것만 찾잖아요. 정적인 것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죠. 하지만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아이들이 '느낌의 미학'도 배웠으면 좋겠어요."(빛) 걱정 반 설레임 반인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도심을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오는 것도, 절에서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다.

법당에 들어온 풍령이는 건드러던 10살의 달빛양은 아빠에게 "절에서는 곤충 괴롭히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다. "행복" 가족의 가장인 자미씨는 빗마루를 뛰어가던 자녀들에게 법당 예절을 알려주어야 했다. "절 안을 거닐 때는 배 앞에 양손을 가지런히 포개서 차수(叉手)하고, 법당을 드나들 때는 옆으로 들어가서 합장 반배를 하는 거란다."

몇몇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대중생활도 수행의 일부'로 여기는 절집 전통에 따라 "3일 동안 온 가족이 법당에 모여서 생활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해 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잠을 자는 생활. 조금만 싸워도, 조금만 상대가 언성을 높여도 바로 표시가 나 버린다. 편할 리가 없다. 중학생 마무군은 "평소에는 우리 식구끼리도 각자의 방에서 지내고 서로 마주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밝히며 "하지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 가족과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다른 사람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진심을 다해 자녀를 끌어안으며 귀에 속삭여본다.

장 단점 이야기하며 하나되기

둘째 날, 본격적으로 절 생활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무심코 상쳐 주며 지내왔던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가족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을 배워 나갔다.

참가자들은 '감사·사랑·보은' 프로그램 시간에 "가족에게 평소 가장 하고 싶었던 것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족들의 장점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라는 김인선 교수(원광대학교 예술치료학과)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결과가 놀라웠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비슷한 점으로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끼여 자신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삼배를 해보는 아이의 얼굴이 밝아진다.



"우리가족은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아이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울퉁불퉁한 발을 씻겨주는 가족들.

있다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사랑' 가족의 평화씨는 "가족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는 동안, 새삼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모래가 남편 생일인데 그동안 (남편의 고향 방식인) 이북식 닭곰탕 한번 못 끓여줘 봤다"며 "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울먹이는 아내. "언제나 아토피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 마음을 알면서도 불량식품을 먹고서 탐이 났던 거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아이.

신기한 것은 그림을 그리니까 말로 할 때보다 더욱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쉽다는 점이다. '칭기와' 가족은 "평소 부부 성격이 예민해서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들 그림에도 그것이 반영된 것을 보고 놀랐다"며 "그 동안 알면서도 못 고쳤는데 이제는 고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박장대소하기도 했다. 산행을 할 때도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부부, 계곡에서 흠뻑을 정성스럽게 서로 씻겨주는 아이들... 가족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진행자 마가 스님(마곡사 포교국장)은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주문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바로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감사를 보내라"고 독려했다.

마음 표현하면 행복해집니다

내일이 되면 늦기에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절정인 이른 것은 마지막 날이었다. '선상원하유아독존' 시간, 참가자들은 각 가족 구성원의 칭찬받을 점 열 가지를 적어 눈을 감고 있는 상대방에게 읽어주었다. "어보, 늘 친정도 잘 챙겨줘서 정말로 고맙워." "그동안 날 아낌없이 사랑해주서 고맙소. 당신이 없으면 내겐 아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한 '하늘 땅' 가족의 부부 피코리씨와 종달새씨는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니 결혼식 날 주례선생님의 주례사 읽을 때의 기분이 되살아났다"고 말하며 웃었다. 평소에는 눈을 마주치기도 쑥스러워했던 부부지만, 오히려 자녀 비둘기양은 "엄마 아빠가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헤어지기 전의 마지막 프로그램 시간, 참가자들은 전원이 서로에게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늘 기쁘고 화목하기를" 기원하며 삼배를 올렸다. "바람과 물" 가족의 춘희씨는 눈가를 훔치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안다는 말대로, 여러분의 사랑과 기원을 받았으니 열심히 가족에게 표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작할 때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이웃사촌이 된 참가자들. 이제 생활현장으로 돌아갈 그들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글귀가 새겨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한다.

'날마다 좋은 날', <역민록> 중에서 글·사진/마곡사=이은비 기자